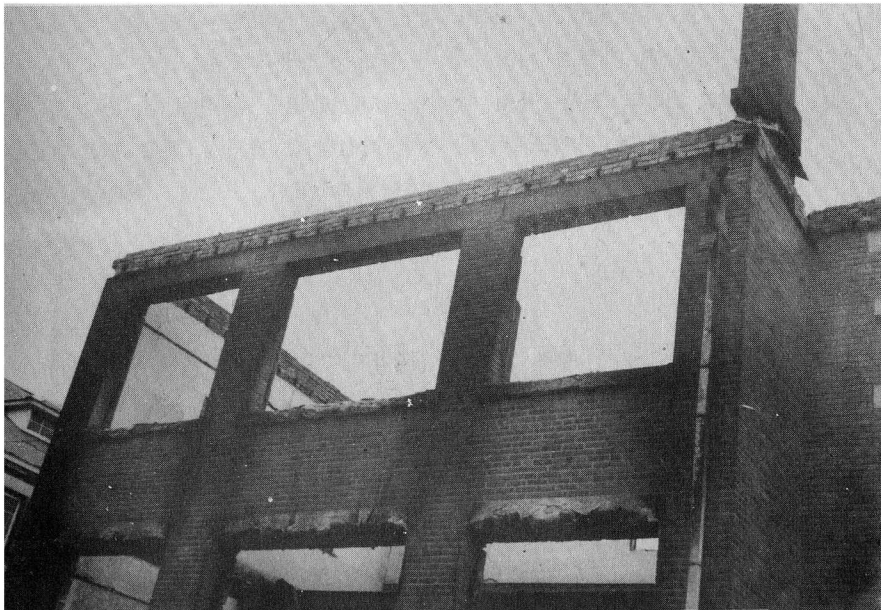


特殊建物 火災現況

1. 신흥 중 고등 학교

- 소재지 : 전북 전주시
- 화재발생일 : 1982. 7. 10
- 용도 : 학교
- 피해액 : 약 5,000 만 원
- 화재원인 : 누전(추정)
- 발화장소 : 고등 학교 본관 2층(교실 천정)
- 피해면적 : 1,586 m²(본관 全燒)
- 화재발견 :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으로 숙직자가 화재 발생 확인
- 소화작업 : 소방차 16대 출동하여 진화
- 평가 : 다행히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작동되어 화재의 조기 발견은 가능했으나 화재 발생 시각이 새벽이었고 건물 구조가 60년 전에 지어진 목조인데다가 이러한 구조에서는 필수적 시설이라할 수 있는 격벽,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2층으로부터 그 하층으로 연소하여 1개 동이 전소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.
이 事例로 보면 下層으로 延燒될 수 있는 條件, 이룰테면 開口部를 통한 불티의



全燒되어 骨造만 남아 있는 고교 본관

飛散, 輻射・對流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 구획상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.

< 협회의 점검 보고서 내용 >

1. 소방 시설 분야

- 소화기 소요수 부족
-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전원 미비 및 감지기 수 부족 등

2. 건축 분야

- 본관에 격벽 및 1,000㎡이내마다 방화벽 설치 안됨.

2. 한국 화장품 대구 지점 건물

- 소재지 : 대구 직할시
- 화재발생일 : 1982. 7. 4
- 용도 : 사무실
- 피해액 : 3,730,281 원
- 화재원인 : 배관 용접시 용접 불티가 냉난방 닥트의 보온 피복재에 착화·연소
- 발화장소 : 4층 파이프 피트 내
- 피해면적 : 지하층~7층의 파이프 피트(내부 시설)
- 화재발견 : 배관 용접공
- 소화작업 : 자체 소화전으로 소화 작업 중 소방대가 출동하여 진화
- 문제점 : 작업 도중에 발생된 화재였으므로 발화 지점이 쉽게 목격되었고 자체 소화전의 활용 및 소방서와의 신고 등,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他部로의 연소는 방지할 수 있었으나 파이프 피트와 통한 각종의 방화벽 관통 부분에 방화 조치가 안되어 각종(특히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지하층, 6층)으로 연소 확대될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고, 또한 용접 작업시 화재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수칙 등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파이프 피트 내의 시설물에 가연성 재료(닥트의 보온 피복재 등)를 사용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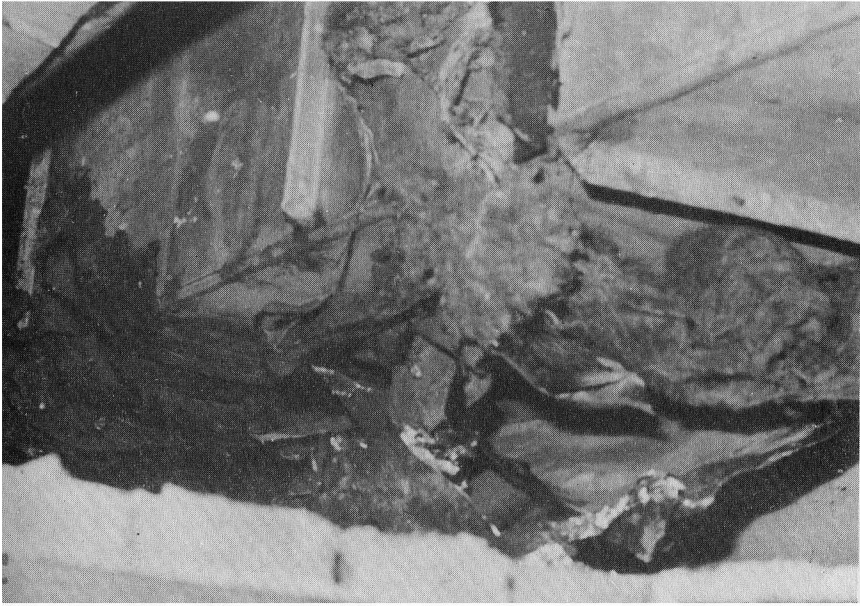
< 협회의 점검 보고서 내용 >

1. 소방 시설 분야

-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상태 일부 불량(감지기 수 부족, 비적용성 감지기 설치 및 설치 기준 미달 등)

2. 건축 분야

- 각종 파이프 피트 수리문, 공조 닥트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부분 등에 방화 조치 미비로 인하여 면적별(1,000㎡) 및 층별(3층이상) 방화 구획 안됨.
- 지하층 및 6층에 합판 내장재 사용
- 비상 조명 설비 미설치 등.



닥트 보온 피복재 소손 상태

